

단편소설

V 난청

박정수

밀 접접촉자이므로 검사를 받으라는 전화가 왔다. 그는 받지 못 했다. 줌(Zoom)을 통해 피의자를 심문하던 중이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중에서 나오는 기계음은 이따금 끊기거나 하울링이 생겨서 그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오른쪽 귀에 이명이 심한 그는 왼쪽 귀를 스피커 쪽으로 기울였다. 한 시간 가량 원격 심문을 했더니 눈알이 까슬까슬하고 귀가 쟁쟁거렸다. 목운동을 하고 눈에 인공눈물을 떨어뜨렸다.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크림이 있다면 낫속에 바르고 싶었다.

그제야 문자를 확인했다.

[동대문구] 귀하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즉시 본 보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소에 전화했더니 경찰 동기가 확진되었다. 동기와 그는 며칠 전에 함께 노래방에 갔었다. “어디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전화 저쪽의 옛된 목소리가 말했다.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돼요. 집에서는 가족과 별도의 방을 써야 합니다.” 원룸에 사는 그에게 자가 격리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히 지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여줬다. 사무실이 술렁였다. 팀원들은 동굴에서 날아오는 박쥐 대하듯 그를 피했고, 투덜거리며 손 소독을 다시 했다. 눈썹 사이를 찌푸린 팀장은 연이어 한숨을 내쉬며 그를 한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는 2주간 격리에 필요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둘러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동기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잠시 후에, 생활치료센터에 막 들어와서 경향이 없으니 저녁에 연락하겠다는 문자가 왔다. 동향인 그와 동기는 아산에 있는 종합경찰학교를 마친 후, 고향 근처 소도시에서 근무하길 바랐었다. 비슷한 정서와 사투리를 가진 사람들 틈에서 그들을 위하며 일하길 원했다. 그러나 첫 발령이 서울로 났다.

보건소에 가서 이름도 생소한 비인두도말(鼻咽頭塗抹) 피씨알 검사를 받았다. 검사 요원이 면봉이 달린 막대를 그의 콧구멍 깊숙이까지 집어넣어 점액을 묻혀내는 방식. 티브이에 나온 사람들처럼 얼굴을 쩡그리며 뒤로 빼는 움직임은 그는 느끼지 않았다. 다만 연거푸 재채기를 했다.

“내일 아침 아홉 시에 연락이 갈 거예요.” 검은색 마스크를 쓴 보건소 직원이 말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잠복기 때문에 이 주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귀하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우두커니 서 있다가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여줬다. 사무실이 술렁였다.

“지난 행적을 다 조사한다던데 정말 그러나요?” 그가 직원에게 물었다.

“최근 삼사 일간 들어간 장소와 만난 사람에 대해 역학팀이 세세하게 물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어찌죠?”

“그러니까 미리 써보는 게 좋아요. 기억을 더듬어 적은 후에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직원은 이메일 주소가 든 자가 격리 안내서를 건네면서, 만약 거짓말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직원은 눈에 고글을 끼고 그 위에 아크릴로 된 얼굴 실드를 덮은 채였다. 귀만 열 어 둔 상태. 만약 귀로도 옮긴다면 새로운 모양의 귀마개를 끼워야 하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소리쳐서 말해야 할 테니 목도 아프고 신경도 날카로워질 것이다.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여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간단히 보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고 속상했다. 여행사에 다니던 그녀는 작년에 들이닥친 환풍 요구에 부대끼다가 그 일마저 없어지지 실직했다.

경찰 동기들의 단체 카카오톡에 여러 문장과 이모티콘이 들어와 있었다.

동대문에 이어 마포 경찰서도 뿔뿔하며 세상이 지뢰밭이야 TTTT 인간을 피하고 하면 신을 만나라 백신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쩌면 오랫동안 방을 비워야 할지 몰라 원룸 청소부터 시작했다. 창문을 열었더니 음식 배달과 함께 늘어난 오토바이 폭음이 들려왔다. 그 폭음은 아스팔트를 부수는 착암기 소리와 비슷했다. 심할 때

는 M16 자동소총의 발사음처럼 들렸다. 그의 귀는 중학생 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군대에서 총소리 때문에 더 나빠졌다. 그것은 예를 들어 현충일에 울린 사이렌이 귀로 들어오다가 나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것과 비슷했다. “이명은 불치병이니 어떻게든 적응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혹시 부모나 형제 중에 귀병이 생긴 분 있나요?”

그의 아버지는 오래 동안 환청에 시달렸다. 잊고 싶은 음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되살아나면서 과거의 고통을 들먹이고 현재의 일상을 흔들었다. 광주 항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안부대 지하실에 끌려가 겪은 고초 때문이었다.

안전보호앱이라는 어플을 깔자 위치가 추적되는 팝업창이 떴다. 그가 원룸에서 벗어나면 전담 공무원에게 곧바로 연락이 간다고 했다.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데워 김치와 함께 먹었다. 오늘 저녁이 지난 오 년간 지내는 이 방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까.

보건소 직원의 말에 따라 지난 삼사 일간 겪은 일을 적기 시작했다. 일기를 쓰지 않는 그로서는 낯설었지만 진술 조서를 꾸민 경험을 살렸다. 역학조사에 필요하지 않아도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괄호 안에 넣었다.

4월 4일 오후 7시. 동기의 생일 기념으로 제기동역 근처 제주핑크요즘살이란 식당에서 동기의 팀원 두 명과 나까지 넷이서 만났다.

오후 8시 50분. 팀원 둘은 식사 후에 먼저 가고, 동기와 나는 음식점 근처 해피파이트라는 노래방에 들어가 한 시간 노래를 불렀다.

4월 5일 오전 7시. 강서구 화곡3길 15, 내가 사는 홀더인디스라는 원룸 건물 앞에서 건물주 노인을 만남. (예전에 노인은 쓰레기 분리수거나 빨래 걸기로 잔소리끼나 했는데 마스크를 쓴 후로 말수가 줄었다.)

7시 20분경 화곡역에서 5호선을 탔다.

그 는 언제나 취조하는 경찰이었는데 이번에는 취조를 당하는 피의자가 된 것 같았다. 1인 2역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 피의자의 심정을 조금 알 듯 싶었다.

노래방 같은 데 가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지난 일 년 동안 잘 따랐다. 동기의 서러운 살 생일 기념으로 한 번 들어갔다가 털커덕 걸렸다. 운이 없으려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들과 함께 여성 도우미 한 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적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30대 초반의 도우미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는 요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러니 술값으로

을 달았다. 꽃보직을 거치면서 경찰 조직을 이끌 기대주라고 알려져 있다. 부팀장이 그에게 취조 요령을 가르쳐주었다. 당하는 사람에게는 안됐지만 그에게는 중대한 직무였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를 단번에 쓰러뜨리지 마라. 그러면 피의자가 재판에 가서 탄소리를 한다. 처음에는 어설픈 자료를 보여주면서 변명할 기회를 주다가 녀석이 거짓말을 하면 그걸 물고 늘어져라. 야근야근 포위망을 좁혀가다가 치명상을 입히기 직전에도 곧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마치 권투 선수가 방빙 물면서 잦을 날리듯이 심문자가 중요한 증거를 들이밀며 날카롭게 찌러댈으로써 상대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만들어야 한다.

오 전 10시 30분부터 12시. 얼굴 성형 수술 도중 약성고열증으로 사망한 여대생의 어머니를 만나 고소 내용을 기록함. (아침에 들떠서 나간 말에는 종합병원에 싸늘하게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식당일 때문에 성형외과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12시 10분. 점심을 먹으러 팀원들과 함께 문배 동육칼집에 갔다. 우리는 아크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섶과 넷으로 나뉘어 육개장칼국수를 먹었다.

저녁 7시. 팀원 모두가 천치식당이라는 단골 백반집에 갔다. 40대 아들과 어머니가 일하는 조그만 식당인데, 내가 만약 확진되면 무슨 냇으로 그들을 다시 불까. (아들이 몇 년 전에 심하게 아파서 빛을 켜고 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좋아 손님이 붐비는 그곳은 감염된 내가 다년간 탓에 며칠 문을 닫아야 할 테고,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확 줄어든 것이다.)

여기까지 쓴 행적이란 게 너무도 일상적이었다. 노래방에 간 것이 이번이라면 이번. 되돌아 돌아보니 시간이나 음식을 정할 때 그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별로 없다. V가 돌면서부터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늘어나자 그의 얼마 안 되는 재량도 헤실바실 사라졌다.

헌팅 포차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랬다간 크게 다친다. 노래방 건도 조만간 징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금지사항들을 지키느라 그동안 잠을 만큼 잠이었다. 경찰서와 식당에서 말고는 만난 사람도 거의 없다. 이 나이에 마땅히 누려야 할 시간을 빼앗겼다고 어디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갔던 것은 아닐까.

그때 카톡! 하고 핸드폰이 소리쳤다.

동기: 뭘은 어때 그: 무중상. 역학팀한테 노래방 도우미 말했니? 동기: 아니, 말 안 했어. 너도 말하지 마. 내가 노래방 주인한테 연락해서 도우미도 검사 받았어. 지



사진=정광희 ▲호남대 미술학과 서예 전공·중앙대 예술대학원 한국화 전공 ▲상해하미술라미술관 레지던스, 뮌헨 문화부 Villa Waldverta 레지던스 ▲홍콩 아트바젤(2019~2021), 개인전 '나는 어디로 번질까?(플랫북, 뮌헨, 독일) 등 다수 ▲LA 카운티 뮤지엄 등 작품 소장

금 자격 중이란다. 내일 아침에 결과 나오면 즉각 알려주기로 했다

그: 너 누구한테 옮았나? 동기: 깜깜이래. 내 생일 이후에 걸린 것 같아. 그러니 나나 도우미 둘 다 음성 나올 거야. 팀원들 모두 검사 받고 자격에 들어갔어. 송죄할 따름 TTTT

그: 죄송할 거 없어. 니 잘못 아님

마 지막 메시지는 그 자신에게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된 게 누구의 탓도 아니다. 노래방 한 번 간 것이 무슨 대단한 죄인가? 하지만 그가 양성이라면 팀원들에게 옮기기도 남았다. 동기에게는 죄송할 것 없다고 말해도 막상 그가 수사팀에 돌아가면 눈치꾸러기가 될 텐데, 어느새 한숨이 나왔다.

만약 그가 V에 걸렸다면, 죽은 여대생의 어머니는 또 어떤가. 그녀는 어디에다 어떻게 호소할지를 몰라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기껏 당부했건만 담당자란 사람이 노래나 부르다가 확진되었다니 그녀는 한탄할 것이다. 만에 하나 조사 과정에서 그녀에게 V를 옮겼다면 그는 죽을 맛이 될 거다.

행적에다 도우미를 적지 않은 것도 꺼림칙했다. 동기가 재빨리 조치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 그녀가 음성이면 괜찮지만 양성으로 나오면 일이 커진다. 내일 아침에 음성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4월 6일. 어제와 같은 빵집에 들렀음.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동생의 군화와 군복을 중고나라에 올려서 판 여자를 심문했다. (그녀는 불법입자 몰랐다면 선처를 부탁했다. 나는 어찌 해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어서 원칙에 따라 기소의 견으로 송지했다.)

12시 10분. 걸어서 오 본 거리의 한우촌이라는 고깃집에 가서 애호박찌개를 먹었다. 부팀장이 컨디션이 안 좋이라며 일찍 퇴근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경찰을 사칭한 피상에 걸려들어 비트코인을 넘겨준 30대 고소인을 줌을 통해 면담했다.

퇴근 후 저녁 7시 30분. 원룸 근처 서브웨이에서 갔다. 여자 종업원 두 명이 내 주문에 따라 길쭉하고 두툽한 빵 가운데에 치즈와 햄, 야채를 채워줬다.

12시 10분. 걸어서 오 본 거리의 한우촌이라는 고깃집에 가서 애호박찌개를 먹었다. 부팀장이 컨디션이 안 좋이라며 일찍 퇴근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경찰을 사칭한 피상에 걸려들어 비트코인을 넘겨준 30대 고소인을 줌을 통해 면담했다.

퇴근 후 저녁 7시 30분. 원룸 근처 서브웨이에서 갔다. 여자 종업원 두 명이 내 주문에 따라 길쭉하고 두툽한 빵 가운데에 치즈와 햄, 야채를 채워줬다.

내일 밤에 고고 동창들과 좀 파티를 가겠다. 각자가 집에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줌 하면 앞에서 건배하고 떠들어댈다. 어떤 친구는 늦은 저녁으로 동탕을 시켜 먹고 몇몇은 채팅을 했으며 샴이 전에는 실내 자전거를 탔다. 서른 명 남짓이 들어왔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친구가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들었다. 클럽에 못 가니 방에서라도 추차고 했다. “다이 너너너너 너너.” 중성 톤의 경쾌한 비트가 동창들의 허리를 흔들게 했다. 선율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도 캔 맥주를 들이키고 스텝을 밟았다. 레몬 즙이 잔득 뿌려진 방울토마토가 입 안에서 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참가자 수만큼의 사각형이 그의 노트북 화면에 채워졌다. 몇 명이 더 나타났다. 대략 5급까지 8행렬을 이룬 사각형들 속에서 친구들은 제각각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술에 취한 탓인지, 문득 양계장에 늘어선 철망 상자들이 떠올랐다. 각자의 철장 속에서 모이를 주어먹거나 고개를 쳐들어 물을 삼키고 이리저리 발을 움직이는 닭들이 연상되었다. 그는 스텝을 멈추고 맥주 캔을 내려놓았다. 비행기를 탄 채로 즐긴다는 무작록 해외여행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4 월 7일 오전 9시 30분. 얼굴이 푸석해진 부팀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진단서와 함께 휴직계를 냈다. 불면증이 심해지고 정신건강에 탈이 났단다.

12시 5분. 신의주잡쌀순댓집에 가서 얼큰순댓국을 먹었다. 부팀장이 떠난 후 팀원들의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오후 2시. 줌을 통해 취조하던 중 밀접접촉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4시 30분. 강서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원룸

에 돌아와 자가 격리에 들어감.

부팀장은 그동안 긴장을 풀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침부터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안전 안내 문자에도 계속 압박을 받았단다. 부팀장은 줌 사용자 꺼렸다. 피의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눈치채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데도 매달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부팀장은 그동안 긴장을 풀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침부터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안전 안내 문자에도 계속 압박을 받았단다. 부팀장은 줌 사용자 꺼렸다. 피의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눈치채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데도 매달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행적이란 게 너무도 일상적이었다.

V가 돌면서부터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늘어나자 그의 얼마 안 되는 재량도 헤실바실 사라졌다.

12시 10분. 걸어서 오 본 거리의 한우촌이라는 고깃집에 가서 애호박찌개를 먹었다. 부팀장이 컨디션이 안 좋이라며 일찍 퇴근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경찰을 사칭한 피상에 걸려들어 비트코인을 넘겨준 30대 고소인을 줌을 통해 면담했다.

퇴근 후 저녁 7시 30분. 원룸 근처 서브웨이에서 갔다. 여자 종업원 두 명이 내 주문에 따라 길쭉하고 두툽한 빵 가운데에 치즈와 햄, 야채를 채워줬다.